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학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소득 수준 상승은 자녀의 학력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실질적 소득 수준과 별개로 부모로부터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기간도 대학 진학 여부와 유형에 영향을 미침.
- 부모의 소득 수준이 학력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고등교육에 미치는 효과는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주

이 글은 최수현(2021.10.5.).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료]. 2022 KRIVET 패널 학술대회'의 내용을 재정리함.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현대사회에서도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함.

-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변수임.
-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 중반 연구들이며, 이후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많지 않음.
- 이 글에서는 보다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2020년대에도 여전히 부모의 소득이라는 환경적 변수가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확인하고자 함.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고용패널 II (KEEP2)」 1차(2016), 2차(2018), 5차(2021) 자료

- 분석 대상: (한국교육고용패널 II) 1차(2016년), 2차(2018년), 5차(2021년) 조사 응답자 7,590명
 - 1차년도(2016년) 조사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들을 매년 추적조사함.
 - 5차년도(2021년) 기준 응답자 연령은 만 22세임.
 - 응답자 규모가 작은 최종학력 그룹(고등학교 및 대학교 중퇴)은 분석에서 제외함.
- 분석 방법: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사용
 - 독립변수인 부모의 소득 4분위를 모두 넣고 분석한 모형1과 각각의 분위를 더미변수로 포함한 모형2로 구분하여 분석함.
 -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함(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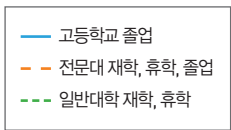
〈표 1〉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		변수 처리
종속변수	현재 학력	1:고등학교 졸업, 2: 2~4년제 전문대 재학/휴학/졸업, 3: 4~6년제 일반대학 재학/휴학
독립변수	부모 소득 분위 (4분위)	현재(2020년) 아버지와 어머니 월 평균 소득의 합 (실수령액 기준)을 4분위로 나눔
통제변수	성별	1: 남성, 2: 여성
	출신 고등학교 유형	1:일반고, 2:자유편, 3:특성화고, 4:과학고, 5:외고(국제고), 6:예술고, 7:체육고, 8:마이스터고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1:서울, 2:부산, 3:대구, 4:인천, 5:광주, 6:대전, 7:울산, 8:경기, 9:강원, 10:충북, 11:충남/세종, 12:전북, 13:전남, 14:경북, 15:경남, 16:제주
	출신 계열	1:문과, 2:이과, 3:예체능, 4:직업 과정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 기간	질문: (학생에게 질문)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녀를 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 wave 자료] 1:고등학교 졸업까지, 2:대학 졸업까지, 3:직장을 구할 때까지, 4:결혼할 때까지, 5:평생
	부모와 미래에 대해 대화하는 정도	질문: 부모님(보호자)과 나의 1.미래 직업(꿈, 진로희망) 과 2.학교 및 학과 선택에 대해 얼마나 자주 대화하십니까? (각 질문 당 5점 스케일로 응답) 두 질문의 응답치를 평균 계산 [숫자가 높을수록 대화의 빈도가 높음]
	고3 1학기 내신 등급 (국어) 고3 1학기 내신 등급 (수학) 고3 1학기 내신 등급 (영어)	1부터 9까지의 9점 스케일 해당 숫자는 해당 등급을 나타냄(1:1등급, 9:9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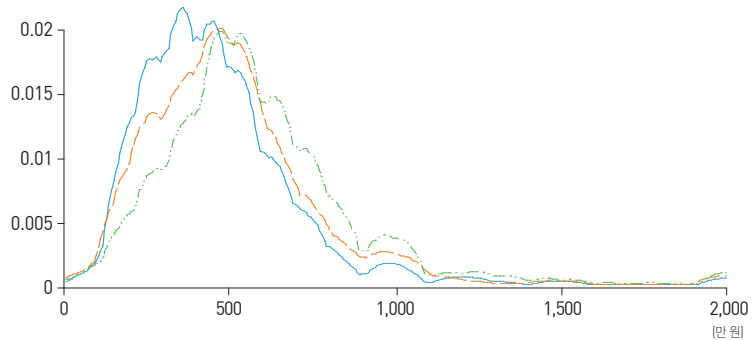
02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학력 간 상관관계

부모의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이 높아질 확률이 증가함.

- 자녀의 최종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소득 분위가 우측으로 이동함.
 -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수록 고등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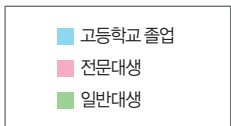


주 | 그래프의 가시성을 위해 부모 월 소득 2천만 원 이상 관측치(48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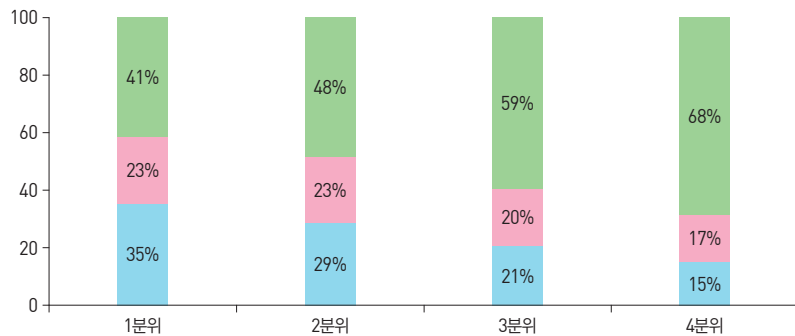


[그림 1] 고등교육 수준에 따른 부모의 소득 분포

- 부모의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자녀가 일반대학에 재학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대학 미진학자 비중은 감소함.
 -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의 고등교육 진학 여부와 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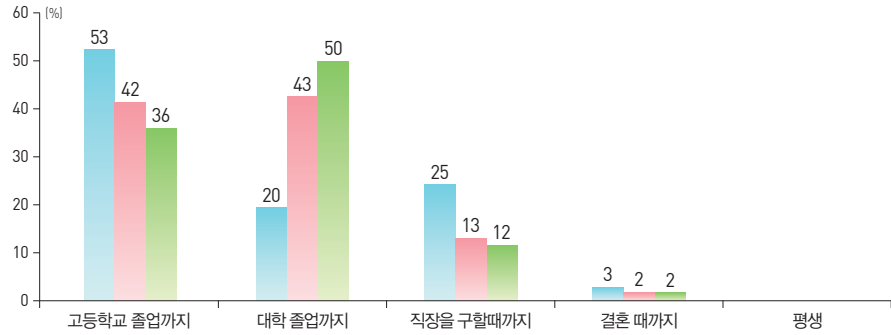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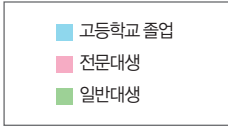
주 | 2020년 기준 소득과 학력 상태임.



[그림 2] 부모 소득 분위에 따른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 사람일수록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음.

- 대학 미진학자의 과반수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점에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고등학교 졸업까지’일 것으로 생각함.
- 반면, 현재 일반대학 재학 중인 학생의 과반수는 고등학교 시절 부모가 본인의 대학 졸업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함.
 - 부모의 절대적인 소득 수준과 별개로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자녀의 고등교육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그림 3] 자녀의 현재 학력별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

주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녀를 언제 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라고 질문한 내용에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시기(2016년)에 응답한 내용임(학력은 2020년 기준).

03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소득 수준은 자녀의 학력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부모의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짐.
 - <표 2>의 모형1은 부모의 소득 4분위 값을 독립변수로 모두 포함하였을 때의 결과로 소득 1분위 상승의 한계 효과를 보여줌.
 - 모형2는 소득 1분위(하위 25%) 그룹 대비 해당 분위의 소득이 자녀의 고등교육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줌.
 - 부모의 소득 1분위 상승은 평균적으로 자녀의 학력 수준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줌.
 - 성적 효과까지 통제하는 경우 소득 1, 2 분위 자녀의 대학 진학 확률에는 큰 차이가 없음.
 - 소득 3, 4분위 가정의 자녀는 1분위 가구 자녀에 비해 대학 진학 여부와 수준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1분위와 4분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표 2> 분석 결과

종속변수: 자녀 고등교육 수준	(1)	(2) +통제변수	(3) +성적변수
모형1: 독립변수=부모의 소득 분위 (1-4분위)			
부모 소득 분위	0.381*** (0.024)	0.256*** (0.029)	0.209*** (0.031)
모형2: 독립변수=부모의 소득 분위별 Dummy			
부모소득 수준 (준거: Ref. 소득 1분위(하위 25%))			
소득 2분위	0.284*** (0.076)	0.179** (0.088)	0.146 (0.095)
소득 3분위	0.737*** (0.074)	0.492*** (0.085)	0.453*** (0.091)
소득 4분위 (상위 25%)	1.122*** (0.077)	0.749*** (0.092)	0.593*** (0.098)
모형1,2 공통			
통제변수	미포함	포함	포함
출신고 지역 Dummy	미포함	포함	포함
성적변수	미포함	미포함	포함
N	5,395	5,394	5,003

주
* p<0.1 ** p<0.05 *** p<0.01

자녀의 성별에 따라 가구 경제력 변수가 고등교육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남.

- 남녀 모두에게 부모의 경제 수준과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는 고등교육 수준을 상승시키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부모의 소득 분위 1분위 상승이 자녀의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성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반면, 고등학교 시절 ‘대학 졸업까지’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 지원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여성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침.

〈표 3〉 성별 분석 결과

종속변수: 자녀 고등교육 수준	남성	여성
부모 소득 분위	0.226*** (0.043)	0.188*** (0.044)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Ref.고등학교 까지)		
2.대학 졸업까지	0.254** (0.103)	0.310*** (0.108)
3.직장을 구할 때까지	-0.086 (0.134)	-0.114 (0.146)
4.결혼 때까지	-0.292 (0.425)	0.264 (0.268)
5.평생	1.861** (0.855)	-0.652 (1.332)
통제변수	포함	포함
출신고 지역 Dummy	포함	포함
성적변수	포함	포함
N	2,630	2,373

주 | * p<0.1 ** p<0.05 *** p<0.01

04 시사점

- 이 연구 결과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이 상승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함.
- 80, 90년대 우리나라의 교육은 계층 간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해왔으나, 국가가 저성장, 양극화 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교육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그 기간과 수준이 달라지는 계층 간 장벽 역할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
-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고등교육은 단순히 교육의 의미를 넘어 노동시장 진입 정보 교류와 커리어 개발의 발판 역할을 하여 사회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짐.
-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부모의 소득과 같이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가정 배경으로 고등교육 기회가 다르게 주어지고 그 수준이 달라진다면, 이는 단순히 고등교육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장기적인 계층화로 이어질 수 있음.
- 그동안 대학 진학의 문턱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구의 경제력에 따른 고등교육 수준에 차이가 관찰되는 것은 개인이 고등교육에 대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환경적 제약이 여전히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줌.

최 수 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